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76호 현대불교
2008년 4월 23일(음력 3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항상 사제절이 닥쳐도 봄과 같이 즐겁게 웃고 살자!

(지난 호에 이어서)

스님: 이거 봐요. 맥이 적당히 너무 쉽게 되면 좋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으면 갖는 거야. 그냥 주인공이다. '너만이 잘해서 잘살게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만 하면 간단할 거를 왜 그렇게 어지러운 생각을 해? 음? 그 어지러운 생각을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야. 생각했던 것 그대로야. 그대론데 자꾸 달아나려는 거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달아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맡기고 그냥 지키고 이렇게 잘 리드해 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참, 뭐? 무슨 집단의 뭐라고 그랬던가? (대중 웃음) 그런 소리 하는 것도 난 듣기 좋아요. 왜냐하면 사교의 집단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냐 하면 타인을 믿으라거나, 타의 형상을 믿으라거나 그러면 그런 집단이 돼요. 그러나 개개인이 다 불성이 있고 자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급했듯이 이 육신이 얼마나 간단하고 그 교주가 되고 싶어서 그러했죠? (대중 웃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지금 여자 관계를 얘기해 주듯이 각자가 하겠으면 하고 말했으면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하계끔 이렇게 인권해 주는 그 역할만 하지 내가 어떡하든지 해서 이걸 구겨넣어 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끔이니까, 각자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말고, 이 몸뚱이 하나의 집단도 지금 이 몸뚱이 하나하나 개개인 집단이라고, 이게 이 집단도 더불어 다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집단을 만들어요? 귀찮게! 하하. 그러니까 당신의 몸뚱이도 그냥 혼자 몸뚱이가 아니. 집단이야, 하하하. 그거 속에 들은 생명들이 전부 집단이죠. 더불어 같이 사는 집단인데도 의식이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인과 밖을 조복해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내 마음을 잘 써야 마음 잘 쓰는 대로 따라주고, 약하게 쓰면 약하게 쓰는 대로 따라준다. 잘 명심해서 앞으로 잘 살아요.

질문자2(남):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자3(남): 본 선원 신도입니다. 제가 한마음 선원에 나와서 공부한 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 2월 법학계 모임 때 스님 친견하고 이번 두 번째 친견입니다. 이 영광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공부 하면서 주인공한테 계속 관하면서 얼마 전부터 한 3개월정도 됐는데 잠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눈이 충혈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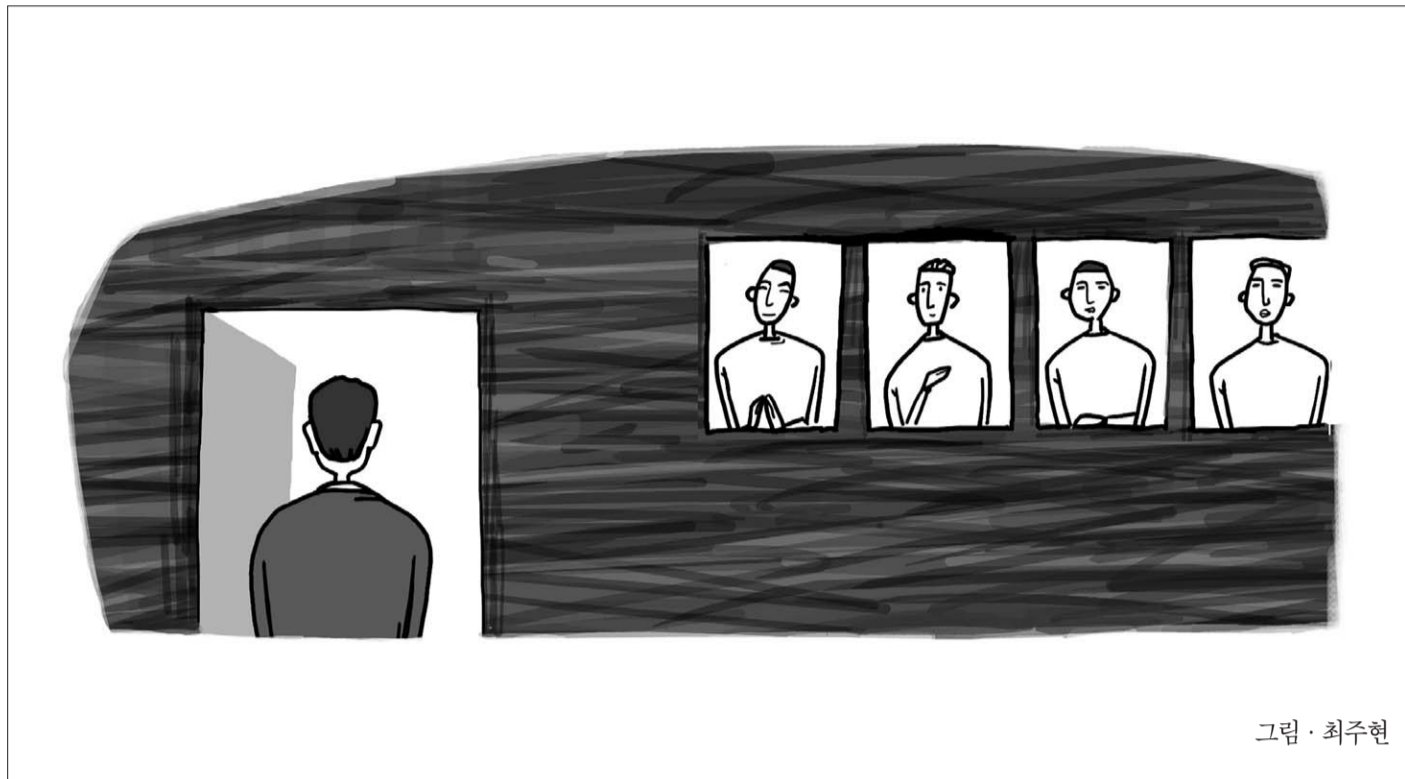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 되는데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더 활동적이고 왕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하는 건지,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리저리 일하는 데만 사실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어떤 순간에 주인공이 아, 이거 내가 끌고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주인공이 끌고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난 뒤에 그 주인공이란 생각을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나한테 경계가 딱 부딪치는데 진짜 머리 끝까지 올라 '주인공, 너 박살내버리겠다. 나오너라.'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인공이란 그 마음을 딱 냈을 적에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대도 천만다행히 스님한테 감사한 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그대도 주인공을 찾으면서 박살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진짜 냈을 때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마음공부하면서 좀더 정진할 수 있게끔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박살을 내봤자야, 하하, 박살을 당할 사람은 당신이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박살내겠다는 생각도 말고 '네 몸뚱이 네가 잘 이끌어 가

아잖아. 이렇게 율팡갈팡 끌고 가서 돼?' 그렇게 좀 인자하게 했으면 더 좋잖아. 하하. (대중 웃음) 그렇게 해서 잘, 앞으로는 맑고 깨끗하게 또는 다복하게 살아요. 열심히 하면, 다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일체제불교도 연결이 돼 있고, 이 불성은,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거든. 그래서 언제나 자비하게 같이 도와주는 빈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

질문자4(여): 저는 광주지원을 통해서 한마음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님을 뵈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요,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저의 인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님한테 저의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어찌 받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언니가 강 보살인데요, 저희 시댁의 내막을 알고 천도재를 무척 권했었어요. 그대도 저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지금도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왔어요. 그래서 천도재를 울조에 지냈습니다. 그대가지고 저의 큰애기가, 여수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곳인데 거기를, 무척 힘

든 실력인데 폐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만 반 이상으로 따라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천도재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고요.

저의 남편이 공무원인데 제가 좀더 보태보자고 생활전선에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했습니다. 아동복을 했는데 처음에 빛을 많이 갖고 시작했는데 그걸 갖는 게 아니라 점점점 누적이 됐고 그거 큰 빛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서 제가 속이고 속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가게 수표를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또 그거를 부도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빚을 지니까 제가 감당기가 어려워져서 직업을 바꾸자 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바꿨습니다. 제가 김밥전문점으로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본사에 미결제 된 것을 결제하고 재투자를 했더니 빚이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삼 개월은 장사가 잘돼서 그것을 다 매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니까 어떻게 된 게 이게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이예요. 인건비는 쪼아 되고 그래서 제가 감당

을 못하니까 이자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남편한테 그걸 계속 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직접 남편한테 연락이 가버렸어요. 저는 놀라가지고, 저의 남편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갔고 저는 그대로 밖을 뛰어나가서 약을 사서 먹어버렸어요. 여관에 가서요. 차라리 남편 놀라는 모습보다 제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여관을 친구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친구에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금액은 더 많은데 한 삼분의 일 정도만 남편에게 알렸어요. 그대 갖고 이 가게를 정리해가지고 남편이 이번에 정리를 해준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 마음 같아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어요. 금전적인 데 대한 얘기를 남편한테 안 감추고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국은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편은 그게 다 인지, 또 있는지를 묻는데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조그마한 가게를 할 수 있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번두리에 다 얻었습니다. 번두리에 다 얻었는데 저는 거기서는 꼭 일어나서 남의 돈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포장마차를 할까 아니면 곰팡 집을 할까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하하. 곰팡집인데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하하하. 모든 게 자기하고 맞아 되겠죠. 자기 그릇하고 그 그릇하고 맞아 되겠죠? 그런데 곰팡집은 당신하고 맞지 않아. 곰팡이 따라주질 않겠어요. (대중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이 마음공부하는 것이, 당신이 기독교를 다녀봤다니깐 알겠는데 주처는 당신한테 있어요.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종교를 믿는다고 믿었겠지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인생을 믿는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 모든 게 생겼고 허영의 그 눈이 당신을 망쳐놓은 거지요. 그것도 욕심이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인공, 너만이 가정을 다 화합하게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하하. 남편한테 다 전후사 얘기를 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음?

질문자4(여): 남편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요, 불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순간 순간들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터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안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평의원
- 안국디지털 비디오투영 편집실 실장
- 방송 이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755-2695,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전문 요가 지도사 과정

요가 치유사 과정

나라고 존재하고 하는 것은 다섯 개 층(kosha)으로 나누어지는 의식으로서 육체를 통해 작동되며, 표현된다.

다섯 개의 층이란
물질의 층, 생명 에너지의 층, 마음의 층, 지식의 층, 행복의 층을 말한다.

총체적 치유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육체의 물질, 에너지, 마음, 지식, 행복의 층을 유기적으로 함께 접근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내용과 수련으로 총체적 요가 치유사로 나아가 수 있다. 질병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에 대한 지식과 B.K.S Iyengar 선생님의 의한 도구활용 Therapy Yoga에 의해 보다 정확한 강력한 치유적 접근법을 배운다.

- 입학식 : 4월 27일(일) 오후 2시
- 교육일정 : 5월 4일 ~ 8월 24일(매주 일요일)
-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교육비 : 300만원
- 강사 : 원장 윤나영(총체적 요가과 외래교수)

임상부 요가 지도사 과정

임상부의 몸과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요가적인 접근으로 임상부의 건강한 몸과 마음, 태아의 바른 성장으로 안정된 출산에 도움을 주는 임상부 요가 지도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입학식 : 4월 27일(일) 오후 2시
- 교육일정 : 5월 3일 ~ 7월 19일(매주 토요일)
- 교육시간 : 오전 1시 ~ 오후 6시
- 교육비 : 60만원
- 강사 : 원장 윤나영(총체적 요가과 외래교수)

총체적요가과 산학협력기관
깨어있는 사람들 - Therapy Yoga
문/의/전/화 051) 231-2230
www.therapyyoga.net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남·여 승려 모집]

- 모집학과 : 본과(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승의 후 3개월 통학 가능)
- 통신반 6개월 통신강의(월 1회 출석)
- 개강일시: 제 3기 2008년 5월 6일(월)
- 자격요건: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로서 나이, 학력 불문
- 특징: 본원은 세계불교 승가회(World Buddha Sangha)에서 운영하는 전문강원으로서 6개월 수료 후 수계득도(승려증 발급)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창건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수강료: 기본 3개월 150만원(숙식제공, 지도비 강의료포함)
- 특강교수 및 지방 연락처

경남지역:무송스님 011-883-7579 대구지역:법인스님 011-548-3684
경북지역:해성스님 010-9421-9364 동두천지역:법현스님 010-7700-7093
부산지역:법봉스님 011-9330-6210 용인지역:송산스님 031-262-1577

- 접수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앙불교대학원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세계불교승가회(World Buddha Sangha)전문강원
중앙 불교 대학원

사단법인 대한한국 불교 소림선종

입종 안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송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한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호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송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송산소림사 석영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송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분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발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도계할 수(입종비:15만원)
- ◇ 입종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 ◇ 입종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서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주 3회 2시간 정공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예: 주 3회 2시간 석천 김가섭선생
- 소림무술: 소림무술스님: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송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담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아후) 연합불교방송